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m 061)320-7700, 7714



“강팀 피했다” 7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대전추첨에서 각 시·도간 회·비가 엇갈렸다. 여자하키 일반부 추첨에서 전남대표팀이 약체팀과 대결하게 돼 환호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최경주 ‘굿 스타트’

BMW챔피언십 첫날 3언더 공동 12위

‘천만달러의 꿈’에 도전하는 ‘완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세번째 대회인 BMW챔피언십 첫날 상위권에 올라 우승후보로 면모를 과시했다.

최경주는 7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레먼트의 코그힐골프장(파71·7천326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7언더파 64타를 때려 선두에 나선 조나선 비어트(미국)가 4타차 공동 12위로 2라운드를 마친 최경주로서는 우승을 향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셈이다.

허리통증으로 지난 대회를 기권한 뒤 치른 경기에서 실전 감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 샷이 다소 흔들렸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스코어를 지켜낸 것이 큰 수확이라는 평가.

올해 드라이버 정확도가 돋보였던 최경주는 드라이버 샷 페어웨이 안착률이 57%에 그치고 아이언샷 그린 적중률도 61.1%에 지나지 않아 고전했다.

그러나 여덟차례 찾아온 보기 위기에서 7차례를 파로 막아냈고 버디 4개를 뽑아내는 등 쇼트게임과 그린 플레이를 앞세워 상위권을 지켰다.

최경주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버디 6개를 뽑아냈지만 어이없는 더블보기에 발목을 잡혀 공동 7위(4언더파 67타)에 머물렀다.

지난 대회 때 필 미켈슨(미국)에게 완패를 당한 빌미가 됐던 퍼팅 난조는 깨끗하게 사라져 18홀 동안 25차례 퍼팅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플레이오프 포인트 순위 30위로 BMW챔피언십에 나서 3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마지막 대회 투어챔피언십 출전 여부가 불안했던 비어트는 무려 8개의 버디를 쓸어담아 ‘인생역전’의 찬스를 만들어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자체조 세계선수권 5위

한국 남자체조가 제40회 세계 기계체조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주형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7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한스 마틴 슐라이어 할레에서 끝난 남자 단체전 결선에서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개 종목 합산 결과 269.950점을 획득, 중국(281.900점) 일본(277.025점) 독일(273.525점) 미국(272.275점)의 뒤를 이었다.

이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거둔 국제대회 사상 최고 성적인 4위에는 못 미치는 세계선수권대회만 놓고 보면 1999년 중국 텐진 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과 같다.

8개국이 겨루는 단체전 결선은 한 종목에 팀당 3명밖에 출전할 수 없기에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치명타로 연결되는 경기.

24개국 치른 예선에서 막사로 결선에 오른 대표팀은 도마부터 차례로 연기를 펼쳤다. 강세 종목 평행봉과 철봉, 마루운동, 링을 거치면서 4위를 달려 잠시 역대 최고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취약종목인 링에서 42.625점에 그쳐 아쉽게 결과가 뒤집히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쾌청 광주 전국체전 조추첨 전남 흐림 전남, 22개 종목 부전승 1만6천점 확보 전남, 1·2회전부터 강팀과 맞대결 많아 2만3천672명 참가...작년비 353명 증가

제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 조추첨에서 광주와 전남의 회·비가 엇갈렸다.

7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조 추첨 결과 광주는 개최지 이점으로 축구 등 22개 종목에서 1회전 부전승으로 자동 통과해 기본점수 1만6천점을 확보하는 등 비교적 약체팀과 2회전에서 만나 점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남은 핸드볼과 배드민턴 등 1·2회전서 강팀들을 만나 결과에 가슴을 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펜싱 일반부 서구형 남자, 여자부 모두 플러레 에베, 사브르에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도 약체와 맞붙게 돼 동메달은 무난하다는 평. 야구 고등부 진흥고도 1회전 부전승, 2회전에서 경남과 전남의 승자와 만나는데 금메달까지 순항이 예상된다.

검도도 대전진이 좋다. 고등부는 1회전 울산, 2회전에서

제주와 충북 승자와 격돌하는데 두팀 모두 약체로 평가받고 있어 금메달까지 노려 볼 만하다. 대학부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2회전 충남과 전북 승자와 대결한다. 일반부도 1회전 부전승, 2회전에서 전북 정읍시청과 부산선발 승자와 대결하게 돼 3회전 승부에 따라 메달 색깔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 고등부는 1회전에서 약체 대전과 만나 2회전 진출이 유력하지만 대학부 호남대가 1회전서 강호 경희대와 맞붙게 돼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하키도 광주제일고가 부전승으로 올랐지만 2회전서 강호

서울 용산고와 경북 대림고 승자와 만나게 돼 어려움이 예상되고, 남자 일반부 조전에도 2회전에서 실업팀인 경북 성주군청과 맞붙게 돼 메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하기가 4종별 모두 1회전에서 부전승으로 2회전에 올라 메달이 기대된다. 국가대표급이 포진한 레슬링은 대전진이 좋으나 금5개, 은4개, 동6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배구 목포고상과 목포과학대는 결선진출이 무난하고, 정구 순천매산고도 최강의 전력에 대전진까지 좋아 금메달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대했던 배드민턴 화순실고가 2회전서 광동북고를 만나 고전이 예상되고, 검도 무안군청도 2회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핸드볼에서는 무안고가 1회전에서 창원중앙고와 만나 탈락위기에 몰렸다.

한편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난 해 김천 전국체전보다 353명이 증가한 2만3천672명이 광주전국체전에 참가한다. 대회 6년째에 도전하는 경기도가 1천88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천792명, 경북이 1천7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24·25호 연타석 홈런

日 진출후 300번째 타점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일본 무대 진출 후 개인 통산 300번째 타점 고지를 밟았다.

이승엽은 7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 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홈 경기에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출장, 1-1이던 2회말 선두타자 노와 선발 라이언 보겔송이 던진 5구째 몸쪽 직구를 받아쳐 우측 펜스를 넘기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또 팀이 3-1로 앞서던 4회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두번째 타석에 들어서 몸쪽 시속 123km짜리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우측펜스를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지난달 31일 요코하마전 이후 7일 만에 터진 시즌 24, 25호 홈런으로 일본 진출 이후 네 시즌 만에 통산 300번째 타점을 돌파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승엽은 일본 진출 첫해인 2004년 지바 롯데에서 50타점을 올린 뒤 2005년과 지난해 각각 82타점, 108타점을 기록했고 올해 61타점을 보태면서 301타점체를 채웠다.

요미우리는 3회 말 현재 4-1로 앞서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용성 국제유도연맹 회장·IOC 위원 사퇴

유럽세력과 내부갈등 원인

박용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자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국제 스포츠계를 떠난다.

IJF 회장 비서실은 7일 오후 두산그룹 총수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IJF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그중 경영에 만 전념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박용성 회장은 1995년 IJF 회장에 당

선된 뒤 2005년 3선에 성공했고 2009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유럽세력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IJF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박 회장은 IOC 위원직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 9월(일)
-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한국-바레인>(00 : 35·MBC, 00 : 50·SBS 스포츠, Xports)
 - ▲PGA BMW 챔피언십 3R(05 : 30·SBS 스포츠)
 - ▲US OPEN 테니스 남복식 결승/여단식 준결(07 : 50·Xports)
 - ▲프로야구<두산-롯데>(16 : 30·KBSN SPORTS), <LG-삼성>(17 : 00·MBC ES-PN)
- 10일(월)
- ▲US OPEN 테니스 남단식 준결(00 : 30·Xports)
- 8일(토)
- ▲전국 가을철 종합 배드민턴 선수권(12 : 50·SBS스포츠)
 -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FR(13 : 00·Xports)
 - ▲KB 스타투어 4차대회 최종라운드(13 : 00·KBSN SPORTS)
 - ▲프로야구<두산-롯데>(16 : 30·KBSN SPORTS), <LG-삼성>(17 : 00·MBC ES-PN)

하태균·한동원 “바레인 골문 내가 연다”

올림픽호 내일 표적종에선 2차전

하태균(수원)-한동원(성남)이 15년간 이어온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바레인전 무패행진을 이어나갈 중책을 짊어진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오전 1시 바레인 마나마 국립경기장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올림픽 예선무대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전승행진(3연승)을 벌이고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최종예선에서 1-0으로 이겼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최종예선에서도 두 차례 맞붙어 1-0, 2-1로 모두 승리했다. 무려 15년 동안 바레인을 상대로 무패행진을 이어온 것.

이에 따라 박성화호는 최종예선 1차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둬 동행을 이루고 있는 바레인을 꺾고 단독 1위를 치고 나서면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각오다.

하지만 바레인전에 나서는 한국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무엇보다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던 이근호(대구)와 이승현(부산), 오버래핑이 뛰어난 왼쪽 풀백 최철순(전북)이 나란히 경교누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박 감독은 4일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김승용(광주)을 왼쪽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멀티플레이어’ 이상호(울산)에게 오른쪽 측면을 맡기는 처방책을 내었다.

최전방은 K-리그에서 골 감각이 살아난 하태균을 주축으로 골 결정력이 좋은 한동원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

187cm의 하태균은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측면에서의 움직임



올림픽최종예선 바레인전을 앞두고 한국올림픽축구대표선수들이 7일 오전(한국시간) 바레인축구협회 구장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임이 좋아 선발출격이 유력한 가운데 박 감독은 한동원과 신영록(수원)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예선 1차전과 카타르 평가전에서 투톱 공격수들이 골맛을 못 봤던 게 박 감독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미드필더진의 변화를 통해 공격전술의 다양화로 골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던 만큼 과감한 중거리포와 미드필더들의 중앙 돌파를 통해 공격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좌우 측면은 김승용-이상호 듀오가 나시고 중앙에서는 백지훈(수원)이 공격의 조율을 맡게 된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장은(울산)과 기성용(서울)이 자리다툼을 하는 형국이다. 포백(4-back)라인의 경우 최철순의 공백은 김창수(대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포진하고 신광훈(포항)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